

## 10 사람

# 응원단장, 선수와 관중을 잇는 지휘자 “망설임 없이 선택한 길… 응원 종사자 가치 인정받길”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 한재권(환경조경디자인학1997)동문

# 프로스포츠 응원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여러 종목에 걸쳐 두드러진다. 치열한 응원 현장, 가장 앞자리에서 팬들의 응원을 지휘하는 응원단장은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현장을 고조시킨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프로배구 OK 금융그룹 웃맨, 여자농구 우리은행 우리WON의 응원단장 한재권(환경조경디자인학 1997) 동문은 어느덧 25년째 경기장 위에서 팬들과 교감하고 있다. 단순 직업을 넘어 홀로 관객과 선수를 잇는 ‘경기장 속 작은 거인’ 한 동문을 만나기 위해 OK 금융그룹 배구단의 홈구장 안산 상록수체육관을 찾았다.

## ‘컬스라’로 시작한 응원단의 꿈 프로에 가기까지

응원단장과의 연은 국제캠 응원단 ‘컬스라’부터 시작했다. 대학생 한재권은 1999년도 컬스라 응원단장이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응원단 공연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다. “긴 점퍼 안에 단복을 입고 있다가 점퍼를 벗고 호각을 불면 모든 학생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손동작 하나에 모두 하나 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그렇게 25년 응원단장으로서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강렬한 무대 뒤에는 그만큼의 노고가 따랐다. 한 동문은 “응원단실이 있었던 학생회관에서 거의 살았다”고 표현했다. 컬스라 입단 후 응원단장이 되기까지 겪었던 과정들 역시 소위 이야기하는 ‘무대 뽐’와 같았다고 말했다. 응원단 선배들의 무대에 예기치 않게 불려 나와 공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열정 하나만으로 활동을 지속했다. 그러던 당시 몸에 익혔던 무대뽐 정신은 25년 차 베테랑이 된 지금까지도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단련이 됐어요. 그걸 이겨낸 사람이 단장이 된 거죠.”

“완전히 확고하게 그냥 나는 이 길이구나”라고 말하며 한 동문은 망설임 없이 프로스포츠 응원

단장을 직업으로 택했다고 한다. 1999년, 프로 농구팀 창원 LG 세이커스에서 데뷔한 한 동문은 이후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를 거쳐 전주 KCC 이지스 응원단장을 하던 6년 차 무렵, “언제까지 소리 지르고 살 거니?”라던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수입으로 살아가길 바랐던 것이 어머니 마음이었다. 그는 어머니께 “3년간 일을 다닌 후에는 아들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대기업에 입사했다. 3년여의 회사 생활은 오히려 응원단장으로서의 삶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일 뿐이었다.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응원단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동문은 경기장 응원석으로 당당히 복귀했다.

## 베어스를 좋아하던 소년 베어스 응원단장이 되다

한 동문은 베테랑 응원단장이다. 현재 응원단장을 맡고 있는 두산 베어스, OK금융그룹 웃맨과 함께한 지 어언 11년 차에 접어들었고 야산 우리은행 우리WON에서는 12년 차다.

특히 두산의 경우 오디션을 통해 응원단장으로 선발됐다. 어릴 적부터 OB 베어스 팬이었던 한 동문은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등 타 구단 응원단장을 해보지 않았느냐는 권유도 뿌리쳤다. 오디션 당시 그는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다. 후보 중 이미 이름이 알려진 두 명의 후보가 있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응원단장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태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원단장이 되면 우리 팀보다 강팀을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절대 우리가 진다고 생각 안 하죠. 응원해야 하는 사람 아니까요.”

처음 프로야구 응원단장이 됐을 때도, 이 일을 이렇게 오래 계속하게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응원단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팬들 덕분이었다. 응원단장을 맡고 있는 구단 중 우승을 하지 못한 곳이 없다. 이는 또다시 더욱 묵직한 응원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됐다. “팝



한 동문은 관객과 선수들이 하나 되어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패배의 아픔은 다독인다. (상단사진=김동희 기자, 하단사진=한재권 동문 제공)

플리며 열심히 응원하고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나도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관객석을 지켜보며 우리나라 응원 문화가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도 체감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관객 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했다. 반면 지금의 문화는 더 많은 관객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동반한 응원을 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응원이 역시 체계적으로 정립돼 관객들이 하나의 응원가에 맞춰 응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응원문화 자체를 즐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동문의 목표는 ‘비인기 종목을 포함한 모든 스포츠에 응원

문화를 도입하는 것’이기도 하다.

## 어떤 스포츠가 가장 좋은지 무의미 “모든 스포츠가 소중”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인생은 스포츠와 응원단장 그 자체라고 봐야죠.” 한 동문은 단순한 응원단장을 넘어 프로스포츠 응원단장과 치어리더 등이 소속된 ‘치어킹코리아’ 응원단을 설립해 업계의 안정성 제고와 응원문화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계약서를 비롯한 문서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지난 경험이 후배에게도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회사를 통해 응원 종사자가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25년 차 베테랑 응원단장이자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바람이다.

인터뷰를 마친 한 동문은 OK 금융그룹 배구단의 대표색 ‘주황색’ 재킷을 걸치고 경기장 가장 높은 곳의 응원석에 섰다. 경기 시작 전부터 마이크를 잡고 경기장 가득 목소리를 메우던 그는 두 시간이 훌쩍 넘도록 자리에 제대로 앉은 적이 없었다.

한 동문의 손짓에 관객은 일제히 ‘세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하나’가 됐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선수들은 관객석을 향해 감사의 박수를 보냈고, 그런 선수에게 한 동문과 관객들은 한목소리로 응원 구호를 보냈다.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힘이 되고, 팬들도 즐거운 응원을 만들어주고 싶다”던 그의 바람이 선수들과 관객의 표정에 깃들어있는 모습이었다.